

개국약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약사회의 역할

정소영*

경기도약사회 수원시분회, 조은약국

(2016년 7월 10일 접수 · 2016년 11월 6일 수정 · 2016년 11월 8일 승인)

Role of Pharmaceutical Association for Enhancing the Professionalism of Community Pharmacists

Soyoung Jung*

Suwon Department of Kyunkido Pharmaceutical Association, Joehn Pharmacy, Suwon 16698, Republic of Korea

(Received July 10, 2016 · Revised November 6, 2016 · Accepted November 8, 2016)

ABSTRACT

Keywords:

Community pharmacist
Pharmaceutical association
Continuing education
Life-long education

Object: This study is prosecuted to assess distribution and status of community pharmacists and to investigate the role of pharmaceutical association that community pharmacists request in enhancing the professionalism and performing the role as a health-care specialist. **Method:** Mail survey was performed among 60 Suwon community pharmacists working in Kyungkido on April 2016 and the data collected was analyzed. **Results:** Most of responders performed their role very well. But they wanted to acquire more information about the new drugs, the drug interactions, adverse reactions of drug, and the drug use of pregnant women and lactating women. Furthermore they felt time and contents of current continuing educations of pharmaceutical association was insufficient. However, they work long hours and they wanted abstracted informations and online education available during their working time. **Conclusion:** The pharmaceutical association should investigate the needs of community pharmacist on continuing education according to the situation of individual pharmacist and provide the suitable life-long education. First of all, the pharmaceutical association should motivate the community pharmacists to learn the information provided more actively.

서론

2000년에 시행된 의약분업은 약국약사들의 전문성과 사회적 역할에 관련하여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약사는 의약분업 전 진단과 처방업무로 가졌던 부담감을 버리고 의약분업 후 약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약사의 업무 중 상당한 부분이 처방에 의한 단순 조제행위에 머무르게 되면서 대중이 인식하는 전문성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¹⁾ 또한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소비자의 의식변화,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

고령화 등의 사회적 변화가 약사의 역할이 단순한 의약품 공급과 정확한 조제에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전문가로서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1997년 WHO의 자문위원회에서는 약사들이 필수적, 공통적으로 가져야할 필수역량으로 보건의료인(care-giver), 의사결정자(decision maker), 의사소통능력자(communicator), 지도자(leader), 경영자/관리자(manager/administer), 평생학습인(life-long learner) 및 교육자(teacher)의 7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약사는 약물과 관련된 교육,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약품 등의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사용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전문적 지식과 노력이 필요하며, 보건의료체계의 환자나 다른 보건의료인들과 원활한 소통능력을 길러야 하며,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위해서 지도자로서 다른 구성원이나 보건의료인에게 보건향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여러 사회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정보의 관리 및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자 노력해야 하며, 의사와 환자의 중간자 역할로 환자를 도우며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높이는데 기여해야 하며,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보건교육에서 약사 역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다음 세대의 약사를 훈련시키기 위한 교육에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전 세계에 미래 약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고 있다. 최근에는 연구자(researcher)를 추가한 8-Star Pharmacist를 약사에게 요구되는 역할로 정의함으로써 약사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1,2)}

약사는 우수한 의약품의 개발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닌 보건전문가로서 지속적인 배움이 강조되어야 한다.³⁾ 지금까지의 약물선택의 조력자라는 약물 중심적 사고에서 약물선택의 결정자로서 환자 중심의 사고로의 전환을 요구 받으며 단순한 치료 중심에서 예방 및 건강증진 중심으로 변화되어 기초 의료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성을 평생교육으로 유지, 강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삶의 전반에 걸쳐 배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은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키고 유지하며, 자신의 전문직능을 강화시키고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미국약학교육인증협회(ACPE)에서 말하고 있다.^{4,5)} 약물과 관련된 치료법에 대한 새로운 동향을 익히고 지속적인 지식 습득을 통해 환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보건의료인들에게도 자문역할을 함으로써 지역의 보건의료에 이바지할 수 있다.¹⁾ 지속적 학습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약사회에서는 매년 시행되고 있는 약사연수교육을 통해서 변화하는 보건의료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의료계의 사회적 변화에 관련된 필요 지식 뿐 아니라 약학의 신지식을 습득하여 약사의 자질향상과 약사 직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³⁾ 약사연수교육은 각종 보건의료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이해, 처방전 검토 및 복약지도에 필요한 지식, 의약품의 제조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식 등 약사에게 새로운 지식 습득과 자질향상을 기하고 약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⁸⁾ 병원약사의 경우 이러한 학술세미나 및 각종 연수교육을 통하여 다양하고 심화된 약사직능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개국약사의 경우 대규모의 약사연수교육으로는 다양한 약국실태에 맞춰 모두에게 충족할만한 교육을 실시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시간적, 지리적 이유로 많은 정보에서 소외되고 있다. 약학대학 졸업생의 약 80%가 졸업 후 개국약사가 되며 국민의 약 70%가 가벼운 질병에 걸렸을 때 우선적으로 약국을 찾는다라는 통계를 볼 때 개국약사와 환자는 밀접한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전방에서 환자의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개국약사들이 시간이나 거리, 관심부족 등의 이유로 수많은 정보나 교육으로부터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⁶⁾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국약사들의 분포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좀 더 많은 개국약사들이 약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보건전문가로서의 역할에 발맞춰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약사들이 요구하는 약사회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약국의 실태와 약사연수교육에 대한 약사들의 견해를 조사하기 위해 2016년 4월에 경기도 수원에 위치하는 개국약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Table 1).

설문 내용으로는 일반사항을 비롯하여 총 4개 부문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 개인정보에 관련된 일반사항(성별, 연령, 학력, 개국경력, 약국의 위치 및 환자특성)과
- 복약상담내용과 복약상담의 고충 해결과정 및 만족도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 현재 전문적 지식에 대한 본인의 평가 및 약사교육의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를 질문하였으며,
- 현재 약사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약사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앞으로의 보완점 및 약사회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총 21문항으로 질문하였다.

설문조사에 응한 약사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비밀을 보장하였으며, 수원에 위치한 약국 410개 곳에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된 60부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작년 기준 수원 413개 약국 약사의 성별 분포는 남자 46%, 여자 54%이며 나이 분포는 20대 0.2%, 30대 7.7%, 40대 33.9%, 50대 30.0%, 60세 이상이 26.6%로 설문 응답자 분포와 50·60대 나이의 분포에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약국현황통계와 설문조사 시기가 달라 적합성 여부를 검토할 수 없었고, 설문지 응답에 50대, 60대의 분포는 큰 차이가 없어 60명의 설문지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Table 1. Contents of question investigation

I. 응답자 개인정보관련

1. 귀하의 나이는?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이상
2. 귀하의 성별은? 1) 남자 2) 여자
3. 귀하의 최종학력은? 1) 대졸 2) 석사 3) 박사 이상
4. 운영하는 약국형태는?
1) 종합병원 문전약국 2) 의원 문전약국 3) 동네약국 4) 대로변 변화가
5. 약국을 개업 년수는? 1) 5년 미만 2) 5-10년 3) 10-20년 4) 20년 이상
6. 약국에 찾아오는 환자의 유형은 어떻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환자수로 평가)
처방 환자 (%) 일반약 환자(%) 건강상담 환자(%)

II. 복약상담 내용과 복약상담의 고충 해결과정 및 만족도

7. 환자에게서 많이 받는 질문은 무엇입니까?(찾은 질문을 1번으로 하여 순서표기)
1) 질병의 이해 및 처방약의 약효 () 2) 약물의 부작용 () 3) 약물의 상호작용 ()
4) 임신·수유부의 복용 () 5) 건강 및 영양제 상담 () 6) 약물 복용법 및 사용법 ()
7) 기타 ()
8. 질문에 대해 대답하기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까? (많았던 것부터 순서표기)
1) 질병의 이해 및 처방약의 약효 () 2) 약물의 부작용 () 3) 약물의 상호작용 ()
4) 임신·수유부의 복용 () 5) 건강 및 영양제 상담 () 6) 약물 복용법 및 사용법 ()
7) 기타 ()
9. 현재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얼마나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 되십니까?
1) 100%만족한다 2) 90% 3) 80% 4) 70% 5) 대답을 못해줄 때가 많다
10.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순서표기
1) 약국 전산프로그램 내의 정보를 이용 한다 ()
2) 인터넷을 통한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자료를 이용한다 ()
3) 관련 책자를 찾아본다 ()
4) 약학정보원 앱을 이용 한다 ()
5) 대답을 못해주거나 다른 전문인의 도움을 받도록 권유한다 ()
6) 기타 ()

III. 전문적 지식에 대한 본인의 평가 및 학습의 필요성 인식도

11. 경력이 쌓일수록 전문적 지식이 향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변화 없다 4) 예전보다 지식이 줄었다
12. 약사로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1) 주 5시간 이상 2) 주 1-5시간 3) 월 1-3시간 4) 연수교육 때만 한다
13. 약사로서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모르겠다 4) 별로 필요하지 않다
14. 정기적인 약사연수교육 외의 교육이나 학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모르겠다 4) 별로 필요하지 않다
15. 현재 자신이 받고 있는 교육이나 학습 외에 더 많은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모르겠다 4) 별로 그렇지 않다

IV. 현행약사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보완점 및 바라는 점

16. 약사회에서 발간한 '한눈에 보는 한 페이지 약학정보'를 읽어 보셨나요.
읽어 보았을 경우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 정도 읽어 보았다
1) 많이 도움이 되었다 2) 도움이 되었다 3) 보통이다 4)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17. 위의 질문에 1, 2 번을 선택하신 경우, 특히 도움이 되었던 곳은 어느 부분 인니까?
18. 위의 질문에서 4번을 선택하신 경우 어떠한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까?
19. 약사회에서 학술정보를 제공한다면 관심 있게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1) 적극적 관심을 갖고 본다 2) 관심을 갖고 본다 3)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20. 약사회에서 학술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어떤 것에 대해 알고 싶습니까?
21. 위의 정보를 제공받으려 하는 형태는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순서표기
1) SNS를 통한 정기적인 정보제공 () 2) 강사초청 강연 ()
3) 약사회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 () 4) 기타 ()

연구결과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약사의 나이 분포는 50대가 48.3%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26.7%, 60대 이상 15.0%, 30대 11.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30대 미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여자가 50.0%이고 남자가 50.0%로 같게 나타났다. 약사의 학력은 대졸이 71.7%로 가장 많았고 석사 26.7%, 박사이상 1.7% 순으로 나타났으며 개업경력 20년 이상 8명(36.7%)을 포함하여 10년 이상이 37명으로 61.7%를 차지하였으며, 10~20년 25.0%, 5~10년 25.0%, 5년 미만 13.3% 순으로 나타났으며(Table 2). 본 설문조사에 응답한 약사의 약국의 위치는 의원 문진약국이 56.7%로 가장 많았으며, 동네약국이 21.7%, 종합병원 문진약국 13.3%, 대로변 변화가 약국 8.3% 순으로 나타났는데 약국의 형태에 따른 환자유형은 종합병원 문진약국과 의원 문진약국의 경우 처방환자가 84.9%, 75.4%로 가장 많았고 동네약국은 56.5%, 대로변 변화가약국도 61.0%로 처방환자의 수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2. 복약상담 내용과 복약상담의 고충 해결과정 및 만족도에 대한 평가

약국에서 환자에게서 많이 받는 질문은 가장 많이 받는 질문과 두 번째로 많이 받는다고 응답한 질문 두 가지의 평균으로 나타내 보았다. 두 번째 질문에 응답하지 않은 분이 5명 있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만 조사한 경우와 두 번째 질문까지 평균을 구한 경우에 있어서 순서가 바뀌지 않았으며 약물 복용법 및 사용법에 대한 질문과 질병의 이해 및 처방약의 약효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다(Table 4). 이는 Table 3에서 본바와 같이 처방환자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나머지 질문은 약물의 부작용에 관한 질문, 약물의 상호작용에 관한 질문, 임신·수유부의 복용에 관한 질문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Distribution of visiting patients according to form of pharmacy Unit:%

약국의 유형	분포	처방 환자	일반약 환자	건강상담 환자
종합병원 문진약국	8처 (13.3)	84.9	12.9	2.2
의원 문진약국	34처 (56.7)	75.4	21.5	3.1
동네 약국	13처 (21.7)	56.5	36.3	7.2
대로변 변화가 약국	5처 (8.3)	61.0	33.0	6.0

복약상담시 현재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대답을 얼마나 잘 해주고 있냐는 질문에는 80%이상 만족한다는 약사가 41명(68.4%)이었으며 대답을 못해줄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대답한 약사는 3명(5%)에 그쳤다. 환자의 질문에 대해 대답하기 어려웠던 적이 있었느냐는 질문 역시 가장 많았던 것과, 많았던 것 두 가지의 평균을 구한 경우에 있어서 순서가 바뀌지 않았으며 가장 질문에 대답하기 곤란했던 부분은 약

Table 3. Distribution of responders

변수	빈도, 명(%)
나이	
20~29세	0 (0.0)
30~39세	7 (11.7)
40~49세	16 (26.7)
50~59세	29 (48.3)
60세 이상	9 (15.0)
성별	
남자	30 (50.0)
여자	30 (50.0)
학력	
대졸	43 (71.7)
석사	16 (26.7)
박사이상	1 (1.7)
개업경력	
5년 미만	8 (13.3)
5~10년	15 (25.0)
10~20년	15 (25.0)
20년 이상	22 (36.7)

Table 4. Type of patient's questions Unit: %

구분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많이 받는 질문 두 가지
질병의 이해 및 처방약의 약효	33.3	30.0
약물의 부작용	6.7	10.0
약물의 상호작용	5.0	5.0
임신·수유부의 복용	1.7	2.5
건강 및 영양제 상담	15.0	14.2
약물 복용법 및 사용법	38.3	34.2

Table 5. Type of the questions to answer hardly

구분	가장 많았던 것(%)	가장 많았던 것 두 가지(%)
질병의 이해 및 처방약의 약효	10.0	10.0
약물의 부작용	21.7	21.7
약물의 상호작용	45.0	34.2
임신·수유부의 복용	13.3	13.3
건강 및 영양제 상담	3.3	5.8
약물 복용법 및 사용법	1.7	1.7

Table 6. Means of solution used for answering patient's questions

구 분	가장 많았던 것(%)	가장 많았던 것 두 가지(%)
1) 전산프로그램 내의 정보를 이용 한다	56.7	33.4
2) 인터넷을 통한 일반인들이 보는 자료를 이용 한다	15.0	30.0
3) 관련 책자를 찾아본다	8.3	12.5
4) 약학정보원 앱을 이용 한다	13.3	20.0
5) 대답을 못해주거나 다른 전문인 도움을 받도록 권유	3.3	4.2

물의 상호작용에 관한 질문으로 응답했다. 이 경우 두 번째 질문에 응답하지 않은 분이 7명 이었다(Table 5).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받았을 때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가장 많았던 것과, 많았던 것 두 가지의 평균을 구한 경우 순서의 변동은 있었으나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두 가지 방법이 전산프로그램 내의 정보를 이용한다는 응답과 인터넷을 통한 일반인들과 같은 자료를 이용한다는 응답이라는 것에서는 변화가 없었다(Table 6).

3. 전문적 지식에 대한 본인의 평가 및 학습의 필요성 인식도

개업 경력이 쌓일수록 전문적 지식이 향상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6명(10.0%)를 포함하여 그렇다고 응답한 수가 44명(73.3%)으로 나타났고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수가 12명(20.0%), 예전보다 지식이 줄었다고 대답한 경우는 4명(6.7%)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평균 2.23±0.72로 지식이 향상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에 현재 약사로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주 1~5시간 공부한다고 응답한 수가 33명(55.0%)으로 가장 많았고 월 1~3시간이 17명(28.3%), 연수교육 때만 한다고 응답한 수가 9명(15.0%), 주 5시간 이상이 4명(6.7%)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2.52±0.83으로 시간 투자하는 것으로 나왔다(Table 7).

약사로서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냐는 질문에서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37명(61.7%)을 포함하여 59명(98.4%)이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1명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고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1.41±0.56으로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정기적인 약사연수교육 외의 교육이나 학습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23명(38.3%)을 포함하여 54명(89.9%)이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잘 모르겠다고는 4명(6.7%), 필요 없다는 경우가 2명(3.3%)으로 나타났고, 평균 1.75±0.73로 학습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자신이 받고 있는 교육이나 학습 외에 더 많은 시간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대답한 16명(26.7%)을 포함하여 47명(78.3%)이 더 많은 시간투자가 필요하다고 대답하였으며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4명(6.7%), 필요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9명(15.0%)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 2.1±0.97로 시간투자가 더 필요한 쪽으로 응답하였으며 필요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모두 50대 이상의 약사들로, 그 중 8명의 개업경력이 10년 이상(88.9%), 1명이 5-10년(11.1%)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4. 현행약사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보완점 및 바라는 점

수원시 약사회에서는 지난 3년간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의약정보를 한 페이지로 간단히 요약하여 약사들에게 주기적으로 SNS를 통해서 제공해 왔으며 이것들을 모아 ‘한눈에 보는 한 페이지 약학정보’라는 이름의 책으로 발간하여 수원시 약사회 회원들에게 배포하였다. 책은 ETC, OTC, 한약제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의 효용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책을 읽어본 사람이 49명(81.7%)이었으며 그 중 50% 이상을 읽어 본 경우가 29명(59.1%)이었다. 50%이상을 읽어 본 29명 중 26명(89.6%)이 도움이 되었다

Table 7. Spending time in current study

학습 시간	빈도(%)
주 5시간 이상	6.7
주 1~5시간	55.0
월 1~3시간	28.3
연수교육 때만	15.0

Table 8. Need of continuing education and the more education Unit: %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모르겠다	필요없다
지속적인 학습의 필요성	61.7	36.7	1.7	0.0
더 많은 학습의 필요성	38.3	51.6	6.7	3.3
더 많은 시간투자의 필요성	26.7	51.6	6.7	15.0

고 답하였으며 책을 읽어 본 전체 49명중에서는 39명(79.6%)이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였다. 나머지 10명(20.4%)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대답한 경우는 없었다.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발간된 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서 질환별, 약효별 정리가 간단하게 잘 되어 있어 한눈에 보기 쉬웠고, 그동안의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대답한 경우가 2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질환이나 약리작용 등 더 전문적인 지식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5명), 약물상호작용이나 복용지도 포인트를 잘 잡아주었다(4명), 한방과립제 및 영양제에 대한 폭 넓은 지식이 향상되었다(3명)는 응답도 있었다. 발간 책의 보완 할 점으로는 좀 더 간략한 정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는 응답으로 상반된 의견을 보였으며, 책에서 언급하지 않은 항생제나 피부질환에 관한 내용보강을 원하는 응답도 있었고 이해를 돕기 위한 강의를 원하는 응답도 있었다. 앞으로 약사회에서 연수교육외의 학술정보를 제공할 때의 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본다고 응답한 14명(23.3%)을 포함하여 58명(96.6%)이 관심을 갖고 본다고 응답하였으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1명, 무응답이 1명으로 나타났다(Table 9).

제공받고 싶은 학술정보로는 약물 상호작용(4명)과 신약의 작용기전을 포함한 정보(4명), 약품별 핵심 복용지도법에 관련된 내용이 많았으며(4명) 그 밖에 건식, 영양제 등 일반약 판매 요령, 질환별 치료법에 관한 최신지견 및 적응증 외의 의약품 사용법(예. 사마귀 치료에 시메티딘 사용 등), 춘곤증, 인플루엔자, 건식 등 시기적으로 유행하는 질환 및 약품에 관한 정보, 약학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외국

사이트의 정보제공을 원하는 응답도 있었다. 학술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형태로는 가장 많이 원하는 형태와 많이 원하는 형태 두 가지의 평균을 비교하였을 때 차이는 있으나 순서가 바뀌지는 않았다. 가장 원하는 형태는 SNS를 통한 정기적인 정보제공이었으며 형태가 만족스러웠던 것으로 생각되며 그 다음으로는 약사회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제공, 강사초청 강연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책자나 정기적인 인쇄물 형태로 제공받기를 원한다는 응답도 있었고 도식화된 설명은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코팅배부를 원하는 응답도 있었다. 참고로 두 번째로 원하는 형태에 20명이 응답하지 않았다(Table 10).

고 찰

본 연구에서는 개국약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약사회의 역할을 위해 현재 약사연수교육외의 더 나아가 학습자료 제공을 위한 초석이 되고자 개국약사들의 업무환경 및 인구적 특성, 지리적 특성에 따른 약국실태 조사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각 약사들이 원하는 전문적 지식함양의 방향을 잡고자 하였다.

설문조사에 응한 6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환자의 질의 응답하기 곤란했던 경우가 약물 상호작용, 부작용, 임신·수유부의 약물복용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환자가 질문하는 빈도가 적은 것에서의 지식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복용상당 중 참고로 하는 자료로는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 내의 정보나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으로는 위에서 열거한 응답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아 좀 더 전문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의 연수교육 시간과 내용이 현실적으로 약사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약사들이 성별, 연령, 약국형태나 경력에 구분 없이 98.4%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 많은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89.9%가 느끼고 있으며 더 많은 시간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78.3%나 되었다. 학술 정보제공에 대한 참여의지는 96.6%에서 성별의 차이 없이 동일하게 보였으며, 개업경력이 10년 이상의 50대 이상에서는 일부 더 많은 시간 투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 경우 약국 유형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제공받고 싶은 학술정보로는 적극 활용 가능한 약물 상호작용과 신약의 작용기전을 포함한 정보, 약품별 핵심 복용지도법에 관련된 내용 등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간략히 요약된 학술정보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았으며 학술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형태로는 SNS를 통한 정기적인

Table 9. Interest in information provided by pharmaceutical association

구 분	빈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본다	14 (23.3)
관심을 갖고 본다	44 (73.3)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1 (1.7)

Table 10. Desirous forms of pharmaceutical information provided Unit: %

구 분	가장 많이 원하는 형태	많이 원하는 형태 두 가지
SNS를 통한 정기적인 정보제공	45 (75.0)	51 (42.5)
강사초청 강연	5 (8.3)	16 (13.3)
약사회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	10 (16.7)	30 (25.0)

정보제공으로 지난 3년간 약사회에서 제공하였던 형태가 만족스러웠던 것으로 생각되며 그 다음으로는 약사회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 강사초청 강연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은 시간적, 지리적 문제로 많은 시간을 학습에 투자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국 영업 중에서도 활용 가능한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약사연수교육이 필수적인 교육이긴 하지만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약국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인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으며, 이러한 조사를 통해 개국약사들은 교육을 담당하는 약사회가 더욱 많은 의견수렴을 하여 질 높은 정보를 제공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약사회는 좀 더 적극적인 정보제공의 자세를 임하여 약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의 장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수원시 약사회에서는 지난 3년간 주기적으로 SNS를 통해서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의약정보를 한 페이지로 간단히 요약하여 약사들에게 제공해 왔으며 이것들을 모아 책으로 발간하였다. 학습을 위한 시간을 따로 내기 어려운 개국약사들을 위해 한걸음 나아간 정보제공 방법이었던 의견들이 많았다. 이는 더 나아가 학습에 대한 의지를 심어주는 데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왔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약사 자신의 학습에 대한 의지가 일어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동기를 부여하는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동기부여를 위해 의무연수교육을 늘리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약국의 다양한 실태문제를 고려한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집체교육 외에 통신교육을 이용하여 원하는 강좌를 수강하고 교육이수를 인정해주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⁷⁾

참고문헌

- 1) 한미선, 강미라, 임수진, 김현아, 강민구. 미래약사의 역할 및 필요역량. 대한약국학회지 2015;1(1):1-7.
- 2) Seven-star pharmacist concept by World Health Organization, Journal of Young Pharmacists 2014;6:1-3.
- 3) 유연미. 현행 약사연수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대한약학회 2007;15(6): 469-75.
- 4) Revision of ACPE Standards 2000. (Standards for continuing Pharmacy Education)
- 5)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CPD), The Accreditation Council for Pharmacy Education (ACPE), www.cape-accredit.org/ceproviders/CPD.asp
- 6) 홍명자. 개국약사가 바라는 임상약학 교육. 한국임상약학회지 1993;3(1):105-10.
- 7) 광재옥. 21세기 약사의 역할과 약학교육. 개국약사의 측면. 병원약사회지 1995;12(4):283-286.
- 8) 대한약사회: 복약지도 실무지침-연수교육 관련규정. 2005.3